

국가철도공단, 코스타리카 태평양연결철도 타당성 조사용역 수주

중남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코스타리카 철도청(INCOFER)이 발주한 '태평양연결철도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중남미 철도시장을 점유했던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의 경쟁 속에서 공단이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수주를 발판삼아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중남미 철도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코스타리카의 수도권 지역인 산호세와 태평양 연안의 폰타레나스를 연결하는 철도노선(98.3km) 복원사업으로, 공단은 국내기업(동일기술공사, 수성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참여해 현지 시장분석·환경평가 등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

공단은 2019년부터 미주개발은행이 발주한 '코스타리카 철도 사업 관리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등 코스타리카와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단의 코스타리카 주력 사업인 산호세 광역여객철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내 컨소시엄(팀코리아)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코스타리카 수도권 지역 교통난 해소가 목적인 산호세 광역여객 철도사업은 약 1조8천억원을 들여 5개 노선 총연장 84.9km를 복선 전철화한다.



1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코스타리카 태평양연결철도 타당성 용역을 체결했다.
2 코스타리카 태평양연결철도 노선도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사업 수주는 향후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해외 철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